

“더 나은 일터로 가는 한걸음,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투쟁”

-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주 5일제 전환 및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한 대응

선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기술·역무·승무·차량·운영서비스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운영서비스지부가 올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9월 파업을 준비 중이다. 주4.5일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5일제도 적용받지 못해서다. <일터>가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한옥녀 지부장, 최경이, 최경자, 한동진 지회장, 김난경 노안부장, 박영준 사무국장을 지난 8월 8일 만났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부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으로 역사 및 열차 청소, 경비, 터널 물청소, 기술설비, 콜센터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입니다. 2021년 용역업체를 통합하면서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설립되었어요. 2014년부터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왔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 성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자회사 소속 직원 1,200여 명 중 지부 조합원은 940여 명이에요.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와 근무현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저희는 크게 8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를 청소하는 역사청소, 선로 및 내벽을 청소하는 터널 물청소, 열차가 드나드는 기지창에서 일하는 반복·종별 청소, 각종 불편이나 질문 등을 문의하는 콜센터, 전기나 오폐수 등 기술 분야, 역사 대청소를 하는 기동 등이예요.

근무형태는 제각각이에요. 지부 조합원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역사청소는 오전반(06~15시), 오후반(12~21시), 심야반(21~06시)으로 나뉘서 일해요. 주6일 근무고, 심야반은 연속 야간근무를 하죠.

종별 청소(열차 바닥, 의자시트, 외관 등을

대청소하는 일)와 청사(공사 내 건물) 담당은 낮 근무로 주5일을 하고 있고요, 반복(중착역에 들어온 열차 내부를 청소하는 일)은 열차가 수시로 드나드니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로 일해요. 경비는 주야비로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터널 물청소 조합원들은 자정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해요. 콜센터도 24시간 운영되어야 해서, 근무시간표가 4~5개로 나뉘져 있어요.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업무가 있을까요?

저희 조합원들이 하는 일 중 힘들지 않은 게 없지만, 터널 물청소 일의 노동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지하철은 땅 밑으로 다니잖아요. 선로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걸 청소하는 일이거든요. 딱 막힌 지하 터널은 정말 어두컴컴하고 무서워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각종 작업이 이뤄져야 해서 모터카도 지나다니고요.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습한지 몰라요. 정말 찝통이에요. 그런데도 물 호스가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된 물통 하나를 못 들고 다녀요. 겨울에 그분들 만나러 가보면요, 밤새 물청소로 옷통부터 신발까지 젖어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선로에 계세요. 그렇게 힘들게 야간근무하고도 급여가 세전 200 수준이에요. 한 조합원이 기본급은 자기 자존심이니 그거라도 좀 올려 달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심야반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사에 심야반이 있는데, 자회사 오면서 오히려 인원이 줄었거든요. 2명 하던 일

을 1명이 하고, 심야반이 한 명이니 그 사람이 쉬면 야간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도 낮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니 약품을 사용하는 대청소는 밤에 해야 돼요. 밤 10시 이후로도 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력 충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역무원 등 다른 직렬 노동자들과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금저하, 노동강도 상승 없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이번 투쟁의 공식 슬로건이에요. 주6일 근무자가 일7.5시간, 주6일·45시간 일하는데, 이걸 주5일·37.5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핵심이에요. 이 과정에 인력을 늘려서 노동강도를 높이지 않고, 임금도 보전되어야 해요. 또 주5일 근무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이 적은 편인데, 그것도 같이 끌어올려서 상향평준화 하고요.

주야비로 3조2교대 하는 분들은 4조2교대로 전환하자고 하고 있어요. 주야비 근무를 하면 온전히 쉬는 날이 없어서 일상이 회사에 묶여버려요. 경비 조합원들은 “손주들이랑 밥 좀 먹게 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기회에 직렬 간 격차를 줄이고 근로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것도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요구를 실현하려면 192명이 충원되어야 해요.

사측과 원청, 부산시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자회사는 인력이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주5



▲ '현장의 목소리' 취재에 응해주신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조합원들 사진 : 이숙건

일제 하자고 해요. 역을 서너 개 묶어서 관리구역제로 운영하면서 노동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요.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는 자회사 노사 간의 문제니 알아서 하라며 뒷짐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청소, 터널 물청소, 경비, 이런 게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자회사 예산의 80%가 인건비일 정도로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돌아가는 회사인걸요. 결국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장시간 노동으로 안전과 건강도 위협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용역업체에 속해 있던 때는 고용이 불안정하니 산재신청 자체를 많이 못했는데, 2021

년 자회사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해에만 산재신청이 48건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산재신청이 줄어들고, 질병신청이 불승인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공사에서 자회사 산재율이 높아지면 경영평가에 불리하다면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해요. 자회사 중간관리자들 모아서 노조가 산재를 부추긴다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인력을 줄이고 최신형 청소기계를 들이겠다고 해요. 물론 기계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죠. 미세먼지도 잘 빨아들이고, 일정 구역에서는 알아서 청소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 없이는 기계도 아무 소용 없어요. 기계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데도 사람 손이 필요하고, 또 기계가 얼마나 잘 고장나나요? 우리 요구대로 주5일제부터 하고, 인력도 늘린 후에 기계 도입을 논의해야죠.



▲ 평일 오전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숙건

현장분위기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파업에 대한 열기는 높아요.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면 90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봐요. 작년 연말부터 조합원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왔고, 그때부터 파업이 답이라고 말해왔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드렸죠.

평일 오전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또 한 주에 두 번씩 역사 거점 선전을 하고 있어요. 9월 4일에는 약식 결의대회를 하고, 8일부터 모든 역사에서 집중 출퇴근 선전전을 펼칠 거예요. 이후 9월 16일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그때에도 부산시와 원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날인 17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시간 노동시간 대응투쟁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저희뿐 아니라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이 주6일 근무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선전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아직도 주6일 근무하느냐며 놀라곤 하세요. 우리에게도 입사할 때 건강했던 몸 그대로 퇴사할 권리가 있고, 주5일제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투쟁은 더 나은 일터로 가는 한 걸음이에요. 그간 서비스지부 내에서도 직렬이 다양해 갈등이 많았는데, 투쟁 과정에서 한마음이 된 만큼 단결의 상징이 될 투쟁이기도 해요.

지하철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다른 직원들 일도 편해지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도 높아져요. 우리 일이지만, 우리 일을 개선하면 결국 모두가 좋아지는 상생이 실현될 거라고 믿어요. 